

품종명 : 홍산(마늘) *품종등록 : 2016년 출품기관 : 국립원예특작과학원

대
통
령
상



- 국내 최초 꽃피는 마늘을 이용한 난·한지 겸용 6쪽 마늘
- 품질개선
 - 바이러스에 강하여 재배가 쉽고, 수확량이 많으며 저장성이 우수
 - (한지재배) 기존 대비 33% 증수(12.9톤/ha), (난지재배) 기존 대비 15.3% 증수(21.1톤/ha)
 - (난지재배) 기존 대비 3개월 이상 저장기간이 김(홍산 익년 3월, 남도 12월)
 - 기능성 성분 함량이 많고, 클로로필 함유로 국산 품종 인증마크로 이용 가능
 - (알린) 홍산 6.40mg/g 남도 6.04, (페놀) 홍산 117.9mg/g, 남도 76.1
 - (클로로필) 홍산 6.29μg/g 기준품종(남도 3.71, 대서 1.77)보다 70~255% 많음
- * 클로로필 효능 : 항암작용, 당뇨완화, 조혈작용, 간 기능 개선 등
- 산업기여
 - 국외품종 씨마늘(대서, 남도) 수입 대체 국내 우수 품종
 - * 한지형 재배면적/점유율 : ('16) 10ha/0.2% → ('17)40/0.8 → ('18) 150/3.0 → ('19) 800/16.0
 - 농약(비료) 사용 절감 및 수량성이 우수하여 농가 소득 향상 기여
 - * 홍성군 200여 농가 47ha 재배 중

품종명 : 대박나(양배추)

출품업체 : 아시아종묘(류경오)

국
무
총
리
상

* 수
출
상



- 5개년 수출실적 : 2,679천USD
 - 수출국 : 터키, 프랑스, 이탈리아, 헝가리, 러시아, 미국, 일본, 중국, 시리아, 이스라엘, 인도네시아, 방글라데시, 태국(13개국)
- 시장 경쟁력
 - 세계 각지 다양한 기후에 재배적합성이 뛰어난 고품질 양배추
 - 내재해성(연작, 고온, 가뭄 등)이 강하고 흑부병, 추대, 열구에 둔감함
 - 재배 용이성부터 저장 유통성까지 대박나 양배추
 - 수송·저장성이 좋아 타 품종에 비해 장기간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현지 바이어와 유통 관계자가 평가함

품종명 : 수황(복숭아) *품종등록 : 2013년

출품기관 : 경북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

국
무
총
리
상



- 물러짐이 적고 무봉지 재배 가능한 소비자·생산자 선호 품종
- 품질개선
 - 경도, 당도 등 품질 특성이 우수한 조생종 품종
 - (수황) 당도 12브릭스, 경도 0.90kg/φ5mm (대비품종) 당도 9, 경도 0.37
 - 과일이 크고, 유통기간 중 물러짐이 적어 소비자, 유통업자, 생산자 선호도 높음
 - 과중 330g으로 기존 품종 대비 40~65% 이상 증대(주조생황도 200g)
- 산업기여
 - 재배가 용이하고 가격 경쟁력 높아 농가 소득 향상 기여
 - 착색이 잘되어, 무봉지 재배 등 농작업이 쉬워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
 - 기존 품종 대비 평균가격 12.8%, 최고가격 41.3% 이상 높은 가격 형성
 - * (수황) 평균 15,084원/4.5kg, 최고 31,725원, (창방조생) 평균 13,366원, 최고 22,450원
 - 신속한 농가 보급·확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
 - 5년간 87천주 보급 등 재배면적 증가 추세
 - * 보급면적(누계) : ('16) 161ha → ('17) 202 → ('18) 237 → ('19) 267 → ('20) 289(연평균 증가율 15%)
 - 묘목 상한액을 명시하여 기존 신품종 대비 농가 묘목비용(로얄티) 부담 50% 이상 경감

품종명 : 골든퀸3호(벼) *품종등록: 2018년

출품업체 : 시드피아(조유현)

농
식
품
부
장
관
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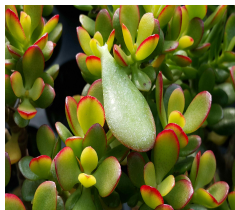


- 밥맛이 오래 유지되고 황변현상이 적은 향미 품종
- 품질개선
 - 재해안정성 우수, 팝콘향의 향미품종, 일본 품종보다 수량성이 높음
 - 간장 76cm인 준단간형으로 내도복성이 강함, 수량 547kg/10a(추청 497kg/10a)
 - 밥을 지었을 때 윤기치가 높고, 밥맛이 오래 유지되며, 황변 현상도 적음
 - 아밀로오스 함량(12.5%)이 낮아 밥맛이 우수하고, '17년 출시 이후 재배면적 지속 확대 추세
 - * 재배면적 : ('17) 850ha → ('18) 2,500 → ('19) 4,500 → ('20) 5,100
- 산업기여
 - 수매가 및 RPC(미곡종합처리장) 마진율이 높아 빠르게 일본품종 대체중
 - 농가소득 15% 증가 : 골든퀸3호 12,480천원/ha, 추청 10,899천원/ha
 - RPC 마진율이 일본품종 대비 17% 높음 : 골든퀸3호 34,950원/10kg, 추청 30,000원/10kg
 - 민간 주도의 새로운 쌀 산업모델 도입의 성공 사례
 - 향미라는 새로운 수요 창출, 고급화 및 소포장(10kg 이하)으로 쌀 유통 확대
 - 전국에 수향미 등 30여개 브랜드로 판매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

품종명 : 꼬맹이(염자) *품종등록 : 2017년

출품업체 : 호자원다육식물원(강석정)

농식품부장관상



□ 다양한 크기로 생산이 가능한 적색잎의 소형 품종

□ 품질개선

○ 잎 테두리에 붉은색이 발현 되고, 잎과 키가 작으며, 결가지가 많아 단독 또는 혼합 재식 관상용으로 적합

* (식물체크기) 꼬맹이 10cm 이하 / 기존품종 15~20cm, (잎크기) 기존 품종의 50% 이하

○ 다양한 크기로 생산이 가능하여 재배자 및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은 시장성이 우수한 품종

□ 산업기여

○ 국외품종 로열티 및 생산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

- 일본도입종이 대부분인 염자시장의 80%를 대체 중으로 로열티 절감
- 내서성 및 내병충성(깍지벌레)이 강해 냉방시설, 농약 살포 등 생산비용 감소

○ 희소성 있는 국내 품종개발로 화훼시장 다변화 및 해외진출 등 화훼산업 신장에 기여

* 네덜란드(듀몬오렌지, 플랜팅), 일본(기코엔)과 판권 협의 중

품종명 : 도담(자두) *품종등록 : 2013년

출품업체 : 복지농원(박인식)

농식품부장관상



□ 저장성이 우수하여 출하시기 조절이 가능한 품종

□ 품질개선

○ 포모사의 돌연변이 선발 육종 품종으로 포모사보다 과실의 크기가 크고, 당도가 높으며, 단단한 육질로 열과가 적고 저장성이 우수

- (과중) 150~170g(최대 250g), 포모사 120~130g

- (당도) 12~13브릭스(최대 14~15브릭스), 포모사 10~11브릭스

○ 색택이 좋고, 쉽게 무르지 않으며, 자두 고유의 맛을 오래 유지

□ 산업기여

○ 일반 자두의 단점인 저장성을 극대화하여 출하 시기 조절이 가능하며 수확량이 많고, 수확기인 8월 상순에 경쟁품종이 없어 시장성이 높음

- (수확량) 1,800~1,900kg/10a, 대조품종 1,600kg/10a, (판매가) 40,000원/5kg, 대조품종 30,000원/5kg

○ 일본 품종을 대체하는 국내 육성 품종

- 자두 주생산지 김천의 특화품종, 김천 자두 재배면적의 60% 차지하며 지속 증가 추세

품종명 : 새한(양송이) *품종등록 : 2016년

출품기관 : 국립원예특작과학원

농식품부장관상



□ 분자마커를 활용한 선발 및 교잡 확인으로 육종기간 단축(7~5년)

* 양송이는 일반 버섯과 달리 암수가 한 개체내에 있어 군사 생장이나 재배로 모본을 선발하고 교잡을 확인하나, 분자마커의 개발로 교잡 여부 신속 확인 가능

□ 품질개선

○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산형·밝은 백색으로 저장성이 우수하며, 수량이 많음

- 저장성 : 육질이 단단하여 수확 후 일주일 상온 보관 시 경도의 변화도 (23N)가 기존품종(2.6N)보다 적어 형태 유지 및 백색이 오래 유지됨

- 수량성(12% 향상) : 새한 35.9kg/평, 외국품종(A15) 31.9kg/평

○ 외국품종보다 선호도가 우수하여 전체 양송이 시장의 40%(18) 점유

- 국내에서 유통되는 6개 품종 선호도 조사('18) : '새한'이 32%로 가장 높았음

* 평가 항목 : 버섯 형태, 갓 색, 재배 용이성, 군사배양력 등

□ 산업기여

○ 평균구입비가 외국품종 대비 52% 수준으로 연간 생산비 절감 효과

* 평균 가격 : 국산 2,600원/kg, 외국산 5,000 (연 360kg/198㎡ 소요 기준)

○ 양송이 국산품종 점유율(65.1%) 향상에 기여

* '새한' 보급 전 ('14) 26.1% → 보급 후 ('18) 65.1 이 중 40%가 '새한'

농식품부장관상 * 혁신상



품종명 : 화수(구기자) *품종등록 : 2016년

출품기관 : 충남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

□ 국내 유일 4배체로 자가수정율이 높아 수분수가 필요 없는 품종

□ 품질개선

○ 비가림재배 시 결실률이 높고, 균일한 생산·품질 관리 가능

* 자가수정 결실률 : 화수 65.7%, 청명 11.4%

○ 지표성분인 베타인과 당 함량, 적색도가 높고 생과 및 건과 품질이 우수

* (베타인) 화수 1.0%, 청명 0.86% (Fructose) 화수 32.2%, 청명 30.1% (열매 적색도) 청명 대비 약 10% 향상

□ 산업기여

○ 병해충에 강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아 소득 증대 기여

- 흑응애 피해엽율 : 화수 7.7%, 청명 36.3% * 약 28.6% 감소

- 수확량 : 화수 321kg/10a, 청명 272kg/10a * 약 18% 증수

○ 탈립성이 좋아 기계수확에 적합하여 대면적 재배에 유리하고, 가공적성이 높음

- 기계수확 시 약 178kg/일 수확 가능(손수확 약 20kg/일)

- 가공용 구기자 약 74톤('17~'19) 정관장 등에 판매(청양 구기자원예농업협동조합)

- 건구기자 약 47천USD 홍콩 수출(늘피영농조합)